

한국경제 100년 운명 바꾼 '49번의 선택'

49가지 결정

최성락 지음

경부선 철도 개통, 수출주도 전략, 베트남 파병, 한일협정,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 IMF 외환위기, KTX 개통 등...



만 이 책에서는 시각을 달리하고자 한다. 그 당시에(만) 중요했던 사건보다는, 2020년 지금 이곳의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적용된다.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지만,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다. 변화의 연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은 우리나라 도시망을 형성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 번성했던 도시들이 쇠퇴하고 경부선이 지나가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졌다. 1945년 미국 시장 자유화는 자유 시장경제로 발돋움하는 단초였다. 미군 주둔으로 시장경제에 진입하면서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주의를 주된 경제 시스템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본다.

1964년 베트남 전쟁 파병은 참전의 논란을 떠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 당시 한국 군인의 인건비는 두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미국이 주는 월급은 한국 정부가 가져가고 우리 군인은 미국의 수당을 받았다. 정부는 미국이 주는 한국군 월급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구호로 시작된 1970년 새마을운동은 가옥의 변화, 농업 현대화를 가져왔다. 새마을운동은 한계도 있었지만 현재의 농촌 모습은 대부분 당시 형성됐다는 평가다.

1980년대 변화도 만만치 않다. 1988년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난 100년에 걸쳐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꾼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1901년 8월 21일 경부선 남부 기공식 장면. (페이퍼로드 제공)

서울올림픽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각각 국제 사회에 한국을 알렸으며, 한국경제를 온몸으로 버티는 힘으로 작용했다.

한국경제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다. 저자는 "당시 한국 상장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400%가 넘었다"며 "심지어 IMF 당시 망한 기업의 부채비율은 1000%가 넘었다"고 설명한다.

2000년대 이후에도 경제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NPT 탈퇴, 재벌 그룹의 민낯이 드러난 소비사태와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 KTX 개통, 정보통신 정책 자체를 뒤바꾼 아이폰 출시 등도 오늘의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지금도 그러한 영향의 자장 안에 머물러 있다. (페이퍼로드·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한 줄도 좋다. 가족 영화=20년 가까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해오고 있는 강수정이 가족이란 대체 뭘까를 영화를 소개하면서 묻는 진솔한 에세이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 '엄마, 그 눈물겨운 이름'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된 책은 '늑차의 맛', '고령화 가족', '바리나사', '이장' 등 총 20편의 영화를 영화를 통해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펼쳐낸다. (테오리아·1만1500원)

▲부론강=제31회 만해문학상을 받은 이인취의 로맨스 역사소설이다. 노동과 사회 이슈를 직설적으로 다뤘던 전작들과 달리 인간 내면을 말한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을 배경으로 마음속 상처로 힘들어하는 두 남자가 사랑을 통해 상실감을 치유하는 이야기다. 책은 "꿈을 찾는 사람들", "거둔사지", "부론강 연가", "노을바다"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선재·1만4000원)

▲재택 HACKS=일본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블룸콘셉트의 대표이사인 저자 고야마 류스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택근무에 대해 소개했다. 재택근무란 무엇인가, 재택근무는 왜 새로운 시대의 일하는 방식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언택트 시대에 일의 방식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안그라픽스·1만69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이 씨앗 누굴까?=과학을 전공하고, 식물과 동물을 아우르는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생태 관련 도서들을 출간해 온 저자 김황은 이 책에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또 성장하는 동물과 식물의 이야기를 담았다. 오리-민들레, 다람쥐-해바라기, 개구리-땅콩, 어린이-은행 등 생김새와 성장 속도가 닮은 동물과 식물들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거짓말 삽니다="안녕하십니까? 저 거짓말을 사러 다니는 올치올시다. 올치 씨라고 불러 주십시오."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짓말을 사러 다니는 고양이 올치 씨가 나타난다. 올치 씨는 민우의 거짓말을 사 가면서, 다음에



▲웃었지만 늦지 않았어="홀로 아리랑", '개똥벌레' 등을 작곡한 작곡가 한돌이 일상 속 찰나의 순간에 발견한 자신만의 성찰을 담았다. 고단했던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찾아온 크고 작은 위기, 그리고 세월을 거머쥔 쌓아온 연륜 속에서 그가 찾아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여울목', '꿀찌를 위하여' 등 명곡들의 탄생에 대해서도 다룬다. (열림원·1만5000원)

▲엄마를 위한 레시피=국제엠네스티 추천도서로, 시리아 내전의 아픔을 배경으로 한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던 살마는 내전으로 난민이 돼, 엄마와 둘이 케냐다로 온다. 낯선 곳에서 아빠도 없이 생계를 준비하느라 고단해진 엄마는 언제부터인가 웃음을 잃는다. 살마는 엄마의 웃음을 되찾아 주기 위해 엄마와 즐겨 먹던 요리 '폴 사미' 만들기에 도전한다. (원더박스·1만3000원)

"엄마, 금방 올게"... 한국전쟁 이산가족의 70년 기다림

기다림

김금숙 지음

작품의 시작은 20년 전 엄마가 들려준 '가족 이야기'였다. 엄마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헤어진 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생사라도 알고 싶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리스트에서 매년 제외될 때마다 슬퍼하는 엄마를 보며, 그녀와 같은 이산가족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아픈 현대사를 그려보자 다짐했다. 그렇게 탄생한 주인공이 '귀자'다.



가 오랜 시간 자료 수집과 조사, 집필을 통해 이산가족에 대한 작품 '기다림'을 펴냈다. 고흥 출신인 저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풀'로 찬사를 받았다.

다. 전 세계 12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된 '풀'은 2019년 미국 뉴욕타임스 최고의 만화, 영국 가디언지 최고의 그래픽노블로 선정됐으며 최근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미국 하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다림'은 소설가 진아가 들려주는 어머니, 귀자의 인생 이야기이자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이야기이며, 세계 도처에

서 가족과 생이별하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작품은 화자인 진아의 목소리를 통해, 귀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어진다. '귀자'는 함경남도에서 방앗간집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다.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녀는 일본군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전쟁터로 끌고 간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결혼을 하고 해방을 맞는다. 하지만 6·25가 터지고 남편, 첫째 아들 상일, 둘째 민혜와 떠난 피난길에서 남편, 상일과 헤어지고 만다. "엄마." "엄마 금방 올게. 아빠랑 있어." 그제 아들 상일과 나는 마지막 말이였다. 일지리를 찾아 떠난 부산에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막내 딸 진아 등 네 아이를 낳지만 상일은 언제 나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의 아들을 찾아 주기로 했던 약속

을 떠올리면 진아는 죄스러운 마음이 더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는 신청자는 너무나 많고 그 기회는 너무나 적다.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어머니와 틈틈이 인터뷰를 하고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평양에서 살았던 시절, 전쟁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기록했다. 또 2018년 21차 이산가족상봉 때 북한의 가족과 만난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저자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개성있는 그림체다. 특유의 섬세하고 힘 있는 붓그림으로 재현된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준다.

세종대 회화과와 프랑크 스트라스부르 고등장식미술학교를 졸업한 작가는 조선 최초의 불제비기 혁명의 삶을 기록한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 제주 4.3 항쟁의 비극을 그린 '지슬', 박완서 원작을 만화로 재구성한 '나무' 등을 펴냈다. (달기책방·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